▣ 그림 여행

감자 심는 사람들
(Potato Planters c. 1861)

쟝-프랑스와 밀레 (Jean-Francois Millet 1814 - 1875)

(캔버스에 유채 32.48 in x 39.88 in 보스턴 미술관)

서양화에서는 감자가 가끔 등장한다. 정물화 중의 한 부분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주로 감자는 사람과 함께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감자와 사람의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일 것이다. 가난한 농가의 한 가족이 고된 일과를 마치고 호롱불 밑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장면인데, 음식은 갓 쪄낸 감자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겸허한 음식을 진수성찬처럼 먹는다. 인간의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그려낸 그림이라고 평가받는다.

여기 이 밀레의 그림은 그 감자를 먹기 위해 땅에 심는 사람들을 그렸다. 구름이 가득한 푸른 하늘 아래 대지, 평평한 밭에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가 감자 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남편이 땅을 파면 아내가 구덩이에 씨 감자를 뿌린다. 한 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밑에는 당나귀가 매어져 있고, 바구니 안에는 아기가 잠자고 있다. 더 없이 평화로운 그림이다.

밀레는 프랑스 농촌 바비종이라는 마을에서 살며 그림을 그렸다. 프랑스 농촌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작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농민들은 마을에 모여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한다. 서로 협동해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영국 스타일은 경작지 안에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아서 농민들이 서로 멀리 고립되어 있는 식이었다고 한다. 현재 각자 자신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미국 농가들도 영국 농가를 따른 형식이다.

그림을 보면 과연 멀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보인다. 이 부부는 아침 일찍 감자를 심기 위해 당나귀에 짐을 싣고 아기와 함께 집을 떠났을 것이다. 그다지 남루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보아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당당한 농민으로 보인다. 당시 프랑스에서 농민이 자신의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한다.

먹기 위해 감자를 심는 일. 추수하기 위해 파종을 하는 것.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한 조각의 땅에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을 심는 행위는 인류가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해 온 일이기도 하다. 땅에 씨를 뿌리며 마음 속에 간직한 염원은 소박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풍성한 수확으로 보장된 든든한 미래를 그리며 농부들은 정성을 다해 땅을 파고 씨를 뿌린다.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모든 인간들의 바람과 기대를 밀레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김동백》

■ 신간

과연 행복이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것인가?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별것도 아닌 것' 이 기쁨을 주는 순간을 발견한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 의 발견을 넘어, 별게 다 행복한 '별다행' 의 순간을 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특별하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명로진 지음 | 마음의숲 펴냄 | 240쪽